

1. 연 혁

1. 우리 군의 연혁

영암군은 삼국시대 이전에는 마한(馬韓)땅에 속하였고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백제(百濟)땅에 속하였는데 당시 월나군(月奈郡)이라 불렀고 삼국이 통일된 신라시대에는 영암군이라 이름 바꾸었고 고려성종(高麗成宗) 14년(995)에는 삼남도호부(三南都護付)를 두어 낭주(朗州)라 개칭하였다가 고려현종(顯宗) 9년(1018)에 이르러 다시 영암으로 부르면서 삼남도호부는 없어졌으며 이때부터 계속 영암이라 불렀다.

영암을 낭주(朗州)라고 부른 때는 전국을 10도로 나누게 되어 전라도(全羅道)를 해양도(海洋道)라 불렀고 그때 해양도는 나주, 광주, 승주, 정주(靜州 現 靈光) 구주(具州 現 寶成), 담주(潭州 現 潭陽), 낭주(朗州 現 靈岩)의 7개군으로 나누었고 각 군 근방제현(近傍諸縣)을 관할(管轄)하였다.

그 뒤 현종(顯宗) 9년에 다시 영암군으로 낮추어 부를 때는 강남도(江南道 지금의 全北)를 합하여 전라도라 개칭하였고 수도(首都)를 전주에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삼남도호부를 두었을 당시 도강현(道康縣 現 康津) 죽산현(竹山縣) 화원현(花源縣 現 海南)이 모두 낭주땅에 속하였다. 그리고 현재 해남군에 소속되어 있는 옥천, 송지(玉泉, 松脂)가 백제시대로부터 냉천부곡(冷泉部曲)이 되어서 낭주에 소속되었다가 조선 세종(世宗) 3년(1421)에 다시 해남으로 편입되었다.

현재 금정면, 시종면은 나주에 속해 있다가 조선 고종(高宗) 28년(1891)에 영암으로 편입되고 현재 완도군 소속인 소모도(小毛島)는 백제시대에 월나(月奈)에 속해 있다가 조선 고종 33년에 다시 완도군으로 편입되고 조선 순종때에 옥천시면, 옥천종면, 북평종면, 송지시면, 송지종면(玉泉始面, 玉泉終面, 北坪終面, 松脂始面, 松脂終面)의 남부 6면을 분할하여 해남으로 이속하여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나주남부 3면은 나주(羅州)에 속하여 있었으나 고종 28년(1891)에 우리군으로 편입(編入)되었으며 1914년(융희 8년)에 조선읍면 폐합령이 공포되어 11면으로 폐합되었다가 1979년(己未) 4월 7일 영암면을 대통령령 제9406호에 의하여 영암읍으로 승격, 2003년 5월 1일 삼호면이 읍으로 승격된 후 2읍 9개면으로 행정구역이 재편되었다.

또한 이조 성종(成宗) 7년(1467) 이성통훈(李誠通訓)이 초대 원님으로 부임한 이래 263대 김상대통정(金相大通政)을 마지막으로 일제의 침략을 당하였고 일제치하인 1911년에 초대 김우현군수(金字炫郡守)를 걸쳐 미군정 치하에서 성동준(成東準)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후인 1948년에 해남인 이영조(李永造)가 초대 군수로 부임한 이래 현 김일래(金逸太)군수까지 38대째(민선4기) 봉직 현재에 이르고 있다.